

2018. 9-10
VOL. 198

DAIL COMMUNITY

정회원 종신허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多一





다일공동체 30주년, 헌신의 열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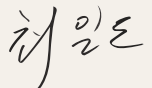
다일공동체 설립 30주년을 맞는 올 해 가을은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맞는 계절이기에 누구에게나 아주 뜻깊고,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어 어렵고 힘들어도 나누고 베풀며 섬기었더니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특별한 가을을 맞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475,000원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 된 무료병원인 천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종자돈을 쥐어 주었던 청량리 후미진 골목의 주민들의 헌신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온 종일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며 파지를 주어서 판 돈으로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아 부었던 그 헌신이 생각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끼고 아꼈던 귀중한 천사후원금을 보내주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무료병원인 천사병원을 세우셨던 그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올 가을 다일공동체 30주년을 맞아 다일공동체 가족 다섯 분이 종신 허원을 합니다.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새 날을 맞으면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아침기도인 조도를 드립니다. 각자 사명실현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온 땅 열방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의 참사랑을 위한 기도와 함께 중보기도만으로 정오기도인 대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무엇에나 준비되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기를 다짐하며 스스로를 내어맡기는 기도와 함께 저녁기도인 만도를 드립니다. 종신토록 날마다 중보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더욱 헌신하는 다일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까지 다일공동체는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는 밥퍼를 청량리에서부터 우간다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밥만 퍼주는 다일공동체가 아니라 문화와 복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밥퍼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다일공동체의 밥퍼는 이제 대한민국의 밥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밥퍼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문화와 복지의 밥퍼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작은형제,  올림

C · O · N · T · E · N · T · S

- 02 30주년 특집 - 돌아보고 내다보며(사진으로 보는 다일공동체 30주년)
- 08 review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
- 10 함께 하는 길
- 12 분원소식
 - 12 중국
 - 14 캄보디아
 - 16 베트남
 - 18 필리핀
 - 20 네팔
 - 22 우간다
 - 24 탄자니아
 - 26 미국
- 28 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 30 밥퍼나눔운동본부
- 32 나누고 싶은 이야기 - 마음에 새기는 나눔, 미래의 희망들과 함께
- 36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후원 명단
- 38 후원 안내
- 39 후원 신청서
- 40 국내 · 해외분원 연락처



COVER STORY

30주년을 맞은 다일공동체에 새로운 다섯분의 정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가실 준비되고 헌신할 분들을 축하합니다.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박찬미, 이순선

디자인 ·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8년 9월

발행처 | 다일복지재단

주소 |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32

홈페이지 | www.dail.org

청량리에서의 시작

(1988년에서 1998년)

1988년 11월, 매서운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청량리 역 광장... 그곳에서 최일도 목사가 함경도 출신의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다일공동체는 시작되었습니다. 나흘을 굶었기에 기력이 없어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대접한 설렁탕 한그릇은 청량리 야채시장에서 하루 하루 근근히

연명하고 있던 노인들과 역 근처의 노숙인들에게 처음에는 라면으로.. 나중에는 한끼의 따뜻한 진지로... 그렇게 이어져 지난 삼십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지를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로의 첫 걸음들과 다일영성수련의 시작

(1999년에서 2008년)

다일공동체의 첫 해외분원은 중국다일공동체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탈북 어린이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훈춘지역의 소식을 듣고서 비상식량과 구호물품을 넣은 가방을 강변에 두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아이들이 구호 가방을 가져갈수 있도록 했던 생명 이음줄 운동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걸음 걸음은 중국 다일공동체의 시작으로 연변 지역의 고아를 섬기는 사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베트남, 미주,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랜기간 숙원사업이었던 다일천사병원 개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이전, 다일 영성의 샘물이자 근원인 묵안리 모원과 DTS 훈련원, 설곡산다일공동체가 문을 열어 전인치유를 도모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영성수련을 통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밥퍼! 청량리에서 아프리카로 다시 남북한 밥퍼나눔운동본부로...

(2009년에서 2018년)

청량리에서 시작된 밥퍼나눔운동은 2009년에서 2018년에 걸쳐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17개 분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청량리 밥퍼에서만 천만그릇이 넘는 밥을 나누게 되었고, 이 나눔은 다일이 가는곳마다 펼쳐졌고, 이제 지경을 넓혀 2018년 8월, 제4회를 맞은 밥으로 이루는 평화운동, 밥 피스메이커로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남북한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설립을 선포하고 비전을 나누

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십년간 이어져 온 해외사역의 결실로 각 나라의 밥퍼를 통해 자라난 2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꿈을 이어 받아 해외 다일공동체에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는 해외다일공동체 최초로 현지인인 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일공동체는 밥퍼나눔운동을 북한땅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남북한 밥퍼나눔운동본부(또는 한반도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다일의 꿈이며 비전입니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

지난 8월 8일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제4회 남북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범국민 평화통일운동인 밥 피스메이커가 개최되었습니다. 삼년간 DMZ내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진행되었던 밥 피스메이커 운동은 올해는 특별히 북녘땅이 손이 잡힐 듯 보이는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개최되며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봉은초등학교 챔버 오케스트라의 오프닝 무대와 남녀 어린이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을 통해 남북 평화의 발걸음을 향한 네 번째 밥 피스메이커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조성기 목사의 개회사와 밥 피스메이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의 기념사가 이어지며 밥 피스메이커 고문인 박종삼 전 월드비전 회장과 공동대표 박종근 목사의 축사로 더욱 밥 피스메이커는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획위원이신 유장춘 교수와 김상민 전 의원 그리고

신종호 이사장의 격려사는 우리 시대의 밥의 의미와 진정한 평화에 대한 의미를 함께 하신 분들께 전하는 순서였습니다.

공동대표이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담임목사와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임성빈 교수는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대신 영상메세지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로 가는 발걸음을 촉구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축하공연으로 테너 하만택 교수와 소프라노 김미주님의 The Prayer라는 곡을 듀엣으로 부르며 가사의 내용 그대로 우리의 진실한 소망에 대해 따뜻한 음색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극단 자전거닐다의 뮤지컬팀에서 준비한 ‘밥이 평화다’ 퍼포먼스는 짧은 시간임에도 분단의 현실이 우리 민족에게 주었던 분열의 아픔을 다시금 돌아보고 결국 70년의 시간을 돌아서 평화의



① 파주 오두산 전망대



② 남북 평화를 소망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프라노 김미주, 테너 하만택



③ 남북 평화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외치는 최일도



④ 봉은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⑤ 신명나는 가락으로 축하무대를 꾸민 사물놀이패



⑥ 극단 자전거 날다의 '밥이 평화다' 무대의 한 장면
면담으로 만드는데 평화를 구현한



⑦ 참석한 남녀노소가 한마음으로 '밥이 평화다'를 외치며 남북의 평화를 촉구한 시간



⑧ 순서마다 뜨거운 호응이 있었던 제 4회 밥 피스메이커 현장

길에서 마주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 남북한 병사들의 모습을 한 배우들이 한 밥상을 마주대고 서로가 서로의 지역 음식을 칭찬하며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지금 서로의 이익에 기대어 현실적인 남북의 평화를 위한 진전이 더듬을 넘어서 밥을 통한 평화의 물꼬를 확실히 터서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금 밥이 평화임을 절실하게 느낄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4년간 이어져 온 밥 피스메이커 공동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일회성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6자의 성실한 회담을 촉구하며 다시한번

밥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촉구하고 내년에는 북한 땅에 한반도(남북)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지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하며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쌀이 릴레이를 통해 북한 땅에 나누어 질 쌀의 희망을 되새기고 다함께 밥의 노래를 부르며 내년 명절에는 직접 쌀을 북녘으로 보내어 가난하고 굶주림에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선언하며 네 번째 밥 피스메이커를 마쳤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평화는 한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 밥을 나누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4년째 이어져온 밥 피스메이커는 이제 새로이 북한 땅에 진정한 밥나눔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더 뜨거운 열정으로 써내려간 캄보디아 봉사활동 이야기 카밍~쑤!

요즘 서점가에는 ‘청년’을 위로하는 글을 담은 책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음에 시간도 여유도 없이 바쁘게 달리고 있는 요즘의 청년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94일의 봉

사 여정을 함께한 전국의 대학생들로 모인 대사협(한국 사회봉사협의회)팀이 더워도 너무 더웠던 이번 여름, 봉사활동을 통해 훈훈한 마음을 선물로 받고 돌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오색빛깔 아름다운 조화로움으로 일귀낸 2주 동안의 활동(단원들의 소감문중 발췌).



밥퍼와 빵퍼는 무상급식으로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는데, 밥과 빵을 전할 때 무릎을 꿇고 한명 한명의 눈을 마주치며 음식을 전할 때 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오곤 했다. 무릎이 저려도 좋을 만큼 매 순간 벅찼다. - 김석준



지금 모든 순간을 돌아봤을 때 나는 매일매일 매 활동이 끝나가면서 그 아이들의 미소와 온기를 내 가슴 속에 쌓아왔던 것 같다. 이런 온기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는 내가 나눔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수업과 같았다. - 강현빈



각자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가장 열정 넘치며 빛나 보였다. 이를 보며 나의 전공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전공에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서로에게 그 무엇보다 좋은 자극제가 되어준 것만 같다. - 윤지현



아이들과의 노는 시간에는 아이들은 내게 다가와서 “여응 멀페아”라는 말을 자주 해주었다. 나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

지 몰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뜻을 알아보니 “우리는 친구”라는 말이었다. 그 말을 알게 된 나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다. 우리가 된 단원들도 언제나 그리울 것 같다. 함께하자 카밍쑤! - 김희주



처음에는 봉사활동의 의미를 스펙이나 의무의 목적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봉사활동이란 ‘마음을 나누는 것’ 주기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 제가 주는 것 보다 아이들한테 받았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지금의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봉사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캄보디아에 가게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 김희희



쓰레기 매립장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사는지 의문이 든 채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느껴지는 쓰레기 악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우리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오기 전에 저의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살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 아이들과 거기에 사는 분들은 그곳이 자기들의 소중한 집이고 그곳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인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

꼭 다시 오겠다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팔찌에 새겨준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흐릿해져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좋았던 추억의 한 장면이 될 캄보디아에서의 시간들.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게 될 동기를 마음 깊이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활동을 마무리할 쯤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했던 왕립 예술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고 돌아간 이곳에서 10년 후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봉사를 할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남긴 건 우리만의 행복한 흔적이 아님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와 함께 문화공연을 했던 프놈펜 밥퍼 센터에 어릴 적 끼니를 해결했던 한 소년이 예술대 학생이 되어 우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공연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

타를 치며 불렀던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과 캄보디아어로 조용히 부르던 그는 아마 10년 전쯤, 자신과 같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던 한국에서 온 누군가를 통해 지금과 같은 꿈을 갖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학생들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을 마주할 기회보다 대학생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 현지에 도착해서 느끼는 불편하고 설레는 표정, 물도 음식도 편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 이러한 불편한 감정은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뛰어 놀면서 새로운 감정으로 거듭납니다. 불편하고 어려웠던 감정들은 이내 기쁨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나 봅니다. 앞으로 해외 봉사를 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도전해 보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고 멈칫 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 하고 건네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중국 CHINA

중다일 애심회

훈춘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 특정 지역을 제외 하곤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심지어 어느 해 여름에는 선풍기 한번도 틀지 않고 여름을 보내던 곳 이었는데 훈춘도 요즘 '38도 최고 고온 황색 조기 경보 신호'를 발령받아 선풍기를 준비하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다일 애심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더위와 상관없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돌아올 중 다일 애심회 가족들과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올 대학생들을 위해 대청소도하고 예쁜 환영문구도 붙이고 간식도 준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휴가를 맞아 훈춘으로 돌아온 최예화는 3주를 머물며 아동 복리원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 예쁜 캄보디아 티셔츠를 선물로 준비해 전달하고 동생들 저녁 외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독립한 사회생활 1

년차 안춘연도 호구부 이전을 위해 방문했는데 역시 가장 먼저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형님, 언니들에게 보고 배운것을 그대로 당연한듯이 시키지 않아도 따르는 아름다운 전통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심양 화공대학에서 국제 경제 무역학을 전공하는 전지향은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고, 연변 의대 조선이는 방학 중에도 병원 실습 수업이 있어 잠시 다녀갔습니다. 방학 중 학업에 지친 조선이를 위해 연변 대학에 방문해 힘내라고 응원하고 돌아왔습니다.

방학이나 명절, 휴가철에 식구가 불어나 돌아온 졸업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2층 침대, 식탁을 추가 구입해 보충했습니다. 더위에 식구가 늘어나면 어떤 면에서 불편한것이 일반적인데 불어날수록 즐거워하며 생활하는 중다일 애심회 가족들을 보며 역시 중국 다일공동체, 삶이 몸에 밴 공동체 가족임을 느낍니다.



① 리은미 방문



② 최예화 방문



③ 왕조선 - 연변대학 방문

독립을 준비하는 요이판, 권상우

이판과 상우는 6월,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동 복리원에서 나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우는 조선족으로 한국 비자가 자유로워 한국에 입국하여 정식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판은 한족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며 더 공부하기를 위해 내년 3월 한국 대학 입학에 대해 현지에서 준비중입니다. 한국 유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고사는 이미 합격을 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순조로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두 아이 모두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대학생으로의 새

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⑤ 최예화 - 외식지원



④ 연결에서 왕조선을 만난 다일 가족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캄보디아 CAMBODIA

건강하게, 꿈꾸며, 사랑으로 자라길 소망하며!

샬롬!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인사드립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던 지난 6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쓰록부억 지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단기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새로운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 의료선교 활동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간에 걸쳐 이어진 진료소는 안과, 내과, 한방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분과를 개설하여 오후까지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쓰록부억 지역의 특성상 마을안에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틀차 진료에는 첫째 날 진료에 오지 못해서 오늘은 꼭 오고 싶다는 찾아온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아픈 곳들을 진료 받으며,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프고 불편했는데 덕분에 좋

아졌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같은 사랑이 가득 담긴 감사의 인사 한 마디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단기 진료소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사역도 이루어 졌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추고 뛰놀며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하다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한 쓰록부억센터 곳곳 벽화에 페인트칠 보수 및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센터를 예쁘게 단장해주시며 수고해 주시고, 특별히 프놈끄라움 밥퍼와 놀이사역, 현지 사역자 대상 성경교육 세미나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사역으로 함께 섬겨주신 새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곤 브레야 예수!



① 새로운 교회 - 의료선교



② 새로운 교회 - 의료선교



향기로운 빵퍼, 뜨겁게, 더욱 뜨겁게 이어지기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센터는 오후가 되면 군침 도는 맛있는 향기가 가득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장소의 주인공은 '빵퍼'입니다!

밥퍼 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지역 아이들과,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주문받은 빵을 위해 빵퍼 스텝들은 간혹 토요일 출근도 불사하며 열심히 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소보루, 모닝빵, 야채빵, 바게트, 도너츠에 이어서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씨엠립을 방문하여 빵퍼 스텝들을 교육해 주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 최원삼 간사님의 수고로 단팻빵도 상품화에 성공하여 지역사회의 주문을 받아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로는 모카번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빵퍼 스텝들은 매일같이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새로운 메뉴 상품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빵퍼의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자립화를 꿈꾸며, 노력하는 빵퍼의 든든한 스텝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300\$ 이면 밀가루 및 이스트 한 달 사용분과, 모닝빵 및 소보루빵을 각각 1,000개씩 지역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곤 브레야 예수!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베트남 VIETNAM

웃어요 웃어요 언제나 웃어요! K.I.S 스마일뱅크 동아리

다일공동체 소식지를 구독하시는 독자 분들께 건전하고 착한 모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내주한 K.I.S(KOREAN INTERNATIONAL SCHOOL)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고자 만든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처럼 사람들의 웃음을 저축한다는 의미의 '스마일뱅크' 동아리!

여름방학 동안 밥퍼에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한도 없이 저축하고 있는 스마일뱅크 동아리의 리더인 신예은 학생의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 자율 동아리 스마일뱅크입니다. 스마일뱅크란 이름은 남을 위해 봉사할 때, 그리고 그 봉사로 인해 사람들이 짓는 스마일(웃음)을 끊임없이 저축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베트남 현지 분들과 고엽제 피해 아동들,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도움과 소소한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심리, 상담, 사회복지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일뱅크 부원들 모두 열정, 끈기, 공감, 이해로 가득 차 있으며 항상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일처럼 봉사에 임하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주로 구찌에 위치한, 고엽제 피해 아동들이 보호 받고 있는 '천복의 집' 고아원 시설에 가서 시설청소를 하거나 장애 아들을 돌보는 활동과 함께 7군 푸미흥에 위치한 '밥퍼'에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성 가득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지역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고엽제 등 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일뱅크가 비록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저희의 작은 손길이 그 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봉사가 많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고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베트남의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스마일뱅크가 되겠습니다!

글쓴이 K.I.S 스마일뱅크 동아리 회장 신예은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필리핀 PHILIPPINES

"오! 해피 데이~~"

지금쯤 한국은 아침 저녁으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가을맞이가 시작되었겠지요? 지난 여름의 기록적이고 살인적인 폭염도 어느새 물러가고 말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 한국과 미국에 계신 후원천사님들 모두 더위를 이겨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은 우기가 시작되었건만 어느 날부터 인가 따가운 햇살이 작열하곤 했습니다. 아니 필리핀에 건기가 다시 돌아오려나? 날씨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종얼거리곤 했습니다. 한국의 기록적인 폭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은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요.

저희 필리핀 다일공동체센터와 이 마을에도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구요? 우리 마을 이름이 '까만씨'인데, 공교롭게도 바닷물도 까만 색이었습니다. 수천명이 쏟아내는 온갖 생활 오폐수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까만 바다가 파랗게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파란 꿈이 피어오르도록 해야지'라는 소망을 하늘로 하늘로 올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우리 센터 주변의 바닷물이 조금씩 조금씩 말갭게 정화되어가고,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도 파란 꿈이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정말이나구요? 네, 정말입니다. 궁금하시면 한 번 오셔서 직접 보세요.^^

필리핀의 학교는 6월부터 신학년이 시작됩니다. 신학년에 맞추어 학용품과 교복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온 마을이 전소되는 대형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마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더욱 절박했죠. 그런데 학용품도 교복도 모두 선물로 받았습니 다. 일대일 아동결연 후원천사님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 좀 보세요. 어디 아이들 뿐인가요?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저희 모두 모두 이렇게 외쳤습니다. "I am happy~"

늘 까만 바다와 대물림되는 빈곤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던 까만씨 마을에서는 기상이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봉사팀이 있습니다. 세부의 유명한 JIC 어학원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John Jo 원장님이 영어 강사들과 다양한 국적의 어학연수 학생들을 인솔해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줍니다. 필리핀, 대만, 베트남, 한국 등 명실공히 글로벌 봉사팀입니다. 이 지역에서 누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겠어요? 아이들은 까르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너무도 재미있는 놀이를 합니다.

한 쪽에서는 빵도 만들지요. 직접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빵 만드는 팀은 다양한 국적의 어학연수생들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베트남에서 공부하러 온 Thanh, Duc 모자(母子)도 열심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베트남은 경제 발전과 함께 영어배우기 붐이 한창 일어나고 있다네요. 젊은 엄마 Thanh이 빵 만들기를 마친 후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질문하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일공동체의 진지기도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경적 배경이 되는 "내가 빵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젊은 엄마 Thanh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그것도 한참. 이럴 땐 저희가 엄청 감동을 먹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이쁘던지 꼬옥 안아줬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Thanh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페소 속에 감추어진 100달러를 꺼내서 후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감동 먹었습니다.(^^) Thanh 외에도 봉사활동과 함께 겸손하게 내미시는 후원금들 속에는 늘 저희를 뭉클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후원금으로 빚어진 빵을 먹는 우리 아이들은 분명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할 겁니다. 다일공동체의 밥퍼와 빵퍼, 그리고 주황색 앞치마가 뽐어내는 생명력과 놀라운 위력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까만씨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빵을 먹고 사랑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뜨거운 땀방울을 뚝 뚝 흘리면서 귀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후원천사님들

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든 후원천사님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후원및봉사문의 : 이명현원장

Mobile. (+63) 916-517-5892 / emhok@dail.org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7701-01-299229 예금주 : (사) 데일리다일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16-517-5892

문 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네팔 NEPAL

신두팔축 꿈퍼 고아원의 건축을 도와주세요!

신두팔축에 지어지고 있는 꿈퍼 고아원은 내부 공사를 하는 중에 공사 대금의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현관을 넓게 바꾸며 완공을 꿈꾸던 중에 한국에서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후원을 약속하셨던 한 후원자님의 경제적 사정으로 후원금 지원이 5천만에서 중단되고 현재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네팔 대지진 당시에는 가장 피해가 컸던 이 신두팔축 지역이 교회와 고아원을 기점으로 변화되고 부흥 할 수 있게 되도록 고아원 공사에 만전을 기하던 네팔 다일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고아원 공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카트만두의 밥퍼도 네팔 당국의 강력한 외국 NGO 사역에 대한 규제와 견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절실합니다.

아동결연 된 어린이들을 돌보며 새롭게 밥퍼가 시작될 날과 신두팔축 지역의 고아원 공사가 재개 될 날을 기다리며 고아원 건축 후원을 해 주실 천사를 기다립니다.

네팔을 위해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팔고아원 건축 후원

국민은행 467701-01-299245 예금주 : (사)데일리 다일





무나 한동대 합격

네팔 최대 빈민촌인 머노하라에 있는 네팔 다일공동체의 가족인 수실라타미의 딸인 무나타미가 한국의 한동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진행까지 무나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많은 격려와 기도로 응원을 해 준 네팔다일공동체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분들이 있어 끝까지 인내하고 힘써서 결국 전액 장학금과 함께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나는 12살 때 네팔 다일공동체를 만나 밥을 먹으면서 네팔 다일공동체와 함께 자랐습니다. 특히 14살부터는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밥을 먹고 가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한동대 비전트립을 만나게 되었고 그 때의 인연으로 한동대에 들어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무나는 한동대학교에 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한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여 한동대에 대한 꿈을 점점 더 키워왔습니다. 한국에서 찾아 온 자원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자신도 그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

습니다. 또한 네팔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 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 네팔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나의 합격소식에 네다일 가족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두가 무나를 위해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동안은 사랑하는 무나를 보지 못해 아쉽겠지만 먼 땅에서 네팔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무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줄 것을 모두가 소리 높여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장장 4년간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지만 무나 주변에는 벌써 한국의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하니 다행입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우간다 UGANDA

턱 종양으로 고통받는 17세 소녀 Gorret(고렛)을 위한 Beautiful Change Project

지난 1월, 아동결연 가정방문 조사를 위해 마을을 다니는데 도움이 필요한 소녀가 주변에 살고 있으니 꼭 한 번 만나면 좋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곧장 발걸음을 돌려 안내를 따라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소녀가 어두운 방 안에서 걸어 나오는데, 보는 순간 입에서 흘러 나오는 탄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턱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 '고렛'은 올 해 17살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지만 심장마비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계의 상황은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렛'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것이 현재 최종학력이 되었고 그 후에 생겨난 턱의 종양이 '고렛'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우간다 국립의료원을 찾아 갔지만 수 년 전인 그 당시 수술비용이 우간다 500만 실링(한화 약 170만원)이 든다는 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돌아왔고 지금까지 손도 못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일찍이 여의게 된 '고렛'은 새엄마와 살고 있었는데 새엄마도 암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턱 종양이 있는 얼굴을 촬영해서 주변의 의료 사역을 하시는 한국

인 선교사님과 의사 선생님과 단기 선교를 오신 성형외과 선생님께도 문의를 드렸는데 한국이 아닌 우간다에서는 수술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고렛'에게도 내용을 설명하고 용기를 잃지 말자는 위로의 말만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나고 '고렛'을 알고 있는 키티코 초등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고렛'의 종양이 더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잘 먹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며, 이러다 죽게 생겼다고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간청을 했습니다. 옆친데 뢰친격으로 새엄마 마저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만난 '고렛'의 종양은 육안으로도 훨씬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종양이 입 안까지 막고 있는 상황이라 발음 또한 더 어눌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고렛'이 검진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조언으로 마침내 재활과 성형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유럽의 의사들도 함께 상주하는 NGO가 설립한 병원인 CoRSU Hospital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CT 결과를 본 의사는 다행히도 양성종양이고 이 병



① 턱 종양 제거 수술 전



② 턱 종양 제거 수술 후



③ 미디어 동의서에 싸인하는 고렛

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며 가장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날인 8월 8일을 안내해 주어 수술 날짜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는 '고렛'이 대 수술을 앞두고 수술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입 안이 심하게 헐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실시한 혈액검사결과와 염증수치도 매우 높아 이를 급히 치료하며 '고렛'의 심각한 상태를 본 주치의도 그 자리에서 동료 의사들과 통화를 하면서 일정을 조정하여 본래 8월 8일의 수술을 7월 4일로 앞당겨 주었습니다. 고렛의 소식이 기도편지와 최일도 목사님의 마음 나누기에 소개 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7월 2일 입원을 해서 피검사와 의사 진찰 및 면담을 통해서 수술을 준비하였고 7월 4일 아침 8시, 드디어 고렛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턱을 다 제거하고 다리에 있는 뼈 하나를 취해 아래턱 뼈로 재건을 하며 신경을 연결하는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고렛은 성공적

으로 잘 견뎌 냈고, 고통 가운데 보낸 열흘의 입원 기간과 집에서의 요양 과정을 통해서 3주만에 실밥을 풀게 되었습니다. 아직 붓기가 다 빠지진 않았지만 턱 종양이 제거된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몰라보게 변화 되었습니다. 이제 잇몸이 다시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는 2년 후에는 수술 때 다 제거한 아래쪽 치아들을 심고 계속 치료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인상의 변화를 넘어 인생이 변화되는 진정한 아름다운 변화가 고렛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탄자니아 TANZANIA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사망률 1위는 에이즈이고, 2위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충이 인체 혈관을 타고 다니다 면역력이 약한 부분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루에 1~3달러 버는 쿤두치 채석장 마을 주민들은 그 수입으로 4~8인 가족의 영양가 있는 음식섭취도 참 어렵습니다. 말라리아 검사비용과 약값 등 최소 5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5달러는 꼬박 2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병원에 안가고 그냥 넘어갑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현지인들의 말라리아 사망률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밥퍼센터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도와달라고 어린이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이런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초적인 방법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는 2년 전부터

터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년전에는 4~5인용 모기장을 300가구에 보급했고, 작년에는 400가구에, 올해는 800가구에 보급을 했고, 9월과 10월에는 모기장을 700장 더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000여 가정이 사는 쿤두치와 인근 마을에 내년에는 2,000장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4~5인용 모기장 1장의 가격은 5달러입니다. 십시일반으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급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58 / 예금주 (사)데일리다일

북미주는 미주다일공동체 애틀란타 본부

770-813-0899



① 병원에서 말라리아 검사하는 아동



● 탄자니아 다일비전센터 기공식

탄자니아 다일비전센터 기공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5년간 기도의 결실로 다일비전트립팀이 오셔서 탄자니아 다일비전센터 기공식을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다일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지난 5년간 수고하신 박상원 홍보대사님, 건축비를 후원해 주신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최일도 이사장님과 김연수 상임대표님 등이 기공식에 함께 해 주셔서 참 기쁘고 뜻있는 기공식이었습니다. 비록 사정상 기공식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가장 많이 후원해주신 KEB하나은행 행장님과 임직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공식 때까지 마지막 3차 부지를 구입하고 정화조 공사를 비롯한 기초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 건물 공사에 들어갑니다. 다일비전센터에는 대안학교 호프클래스 교실, 청소년들을 위한 제빵기술교실, 여성들을 위한 미싱교실, 방과후 교실, 마을의 유일한 도서관, 식당, 그리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묵을 게스트룸 등이 건축됩니다.

건축 후 책상과 걸상, 책장, 제빵기계들, 미싱교실 재료들, 도서관 비품들과 2,000여권의 책들, 식당 주방기구와 식탁과 의자, 2개 게스트룸의 가구 등등 소프트웨어로 준비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은 건축 후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기도하며 본격적인 본 건물 건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산테!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미국 AMERICA

HOT Summer vacation!

미주다일공동체에 2018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4명의 소년 봉사단 팀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주다일공동체의 소년 봉사단 Jacob(10학년), Joshua(9학년) 형제와 Chris (10학년) Andrew(9학년) 형제를 소개합니다. 두 형제 모두 서로 약속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미주다일공동체로 올 여름 방학을 뜻 깊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자 연락을 주었습니다. 함께 봉사하기로 한 첫날 봉사 현장에 와서 만난 두 형제들은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살며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제끼리 서로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친한 친구들이라 마음이 통했는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봉사 현장에서 같은 날 우연히 만나 4명이 한 그룹이 되어 2달여간의 여름방학 동안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여름 Jacob, Joshua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친지들을 만나러 방문하였을 때 다일공동체의 사역지인 네팔 다일공동체를 일부러 방문하여 온 가족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돌아 왔다고 합니다. 네팔 다일공동체 현장을 방문하여 네팔 다일 호프클래스 아이들과 센타 아이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아 자신들의 용돈을 아끼어 네팔 아동 한 명을 일대일 결연을 맺어 그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 해 주기로 결심했다고 하니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네팔을 방문하고 더 느낀바가 많아 미주다일공동체로 연락을 하여 미국에서도 계속 봉사를 이어 가고 싶다는 봉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2달여간의 여름방학동안 4명의 소년 봉사단

들은 미주다일공동체의 협력 NGO 기관인 cross care pointe를 매주 3회 방문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고 이곳 저곳에서 전달받은 후원물품들을 정리해 주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매번 가장 먼저 봉사 현장에 달려와서 오늘 나누어 주어야 할 식료품들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박스에 담아 포장하고, 썩은 야채와 과일을 골라내는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요. 몇 시간을 이어서 해야 하는 봉사이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아이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모든 기관 관계자 분들이 아주 큰 힘(Big Help!)이 된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라 평소보다 봉사자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 봉사자가 부족하던 참인데 다일 소년 봉사단의 활약이 큰 도움이 된 거 같아 다일소년 봉사단들이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할 해야 할 아이들이지만 방학이 끝난 후에도 주말에



① Chris



자주 찾아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돕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방학동안에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2달간 그 시간들을 이웃을 위해 함께 수고한 아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미주다일 소년 봉사단!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대한민국 KOREA

무더운 날, 혼자 외로이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018년,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서도 노숙인 요양 시설인 다일작은천국은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여름을 나기 위하여 입소자들을 위해서 여름 옷을 구입해 드리고, 냉방기를 가동하여 입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암과 중증질환으로 인해 입소자분들께서 올해 7, 8월 두 달 동안만 4명의 입소자분들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님은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하시자마자 "오래 살아서 머하나, 나는 더 이상 병원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어 통증완화 조절을 하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셨지만 췌장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연고자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찾아드리지 못해 외로이 무연고

자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김○○님은 구세군 브릿지 센터를 통해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하셨습니다. 위암으로 인해 간까지 전이가 되었고 점차로 식사를 하시지 못하고 전신이 쇠약해지면서 살이 점점 빠지시고 지쳐 보이는 상태이셨습니다. 약화되는 상태로 인해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호스피스 병동에서 통증 조절을 하셨지만, 결국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평소 병환 중에도 행복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님은 입소 상담시 10년 동안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동묘시장까지 직접 가서서 물건을 사실때에도 "작은 물건도 소중한, 귀한 걸 구입을 잘 했다."라고 환하게 웃으시며 돌아오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의료지원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걱정과 다르게 사망 직전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부인과 아들, 딸을 모두 볼 수





있었고 편안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박〇〇님은 30대 초의 젊은 나이에 위암 4기로 인해서 시한부 삶을 판정 받아 서울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다일작은천국으로 입소하셨습니다. 입소상담 중에서도 본인이 한 달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동안 마지막통화를 했습니다.“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병문안을 했지만 무엇을 드실 수 없는 건강상태로 드시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셨던 모습을 뒤로 한 채로 세상과 이별하셨습니다.

무더위에도 입소자들을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가족도 찾지 못하고 홀로 무연고자로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4명의 임종자분들을 위해 직접 구청과 주민센터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연고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연고자를 찾은 후에는 가족들과 마지막 임종을 함께하는 천국환송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일작은천국 종사자들은 365일 쉬는 날없이 기다리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천국환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 않고 마지막 임종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일작은천국은 입소자 한분 한분 소중히 보살펴 드리고, 임종까지 계속해서 책임질 수 있는 노숙인 요양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대한민국 KOREA

아이와 함께 한 봉사활동

뜻내기 같던 아이가 2학년이 되고서야 유치원생과의 경계가 확실한 초등생 같았다. 학년이 바뀌니 여러 안내 문들이 학교로부터 전달되었다. 1학년 때도 있었던 왓지 익숙한 이름의 봉사대 안내문도 함께...

그러나 일과 세 아이를 양육하는 하프(일 반, 양육자 반)삶을 사는 나로서는 어딘가에 소속이 된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1학년 반 친구 엄마가 봉사의 강제성은 없다고 시간이 맞으면 하면 된다는 말이 도움이 되어서 봉사를 가르치고 싶은 맘이 있었던 나를 아이와 함께 챌린저와 샤프론 봉사대에 가입 하게 되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산다. 넘쳐서 잉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풍요가 당연한 것인 나의 아이에게 자기가 누리는 풍요가 당연함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알려 주고 싶었다.

처음 봉사를 갈 때는 아이가 집짓 얼굴표정과 말로 다른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오히려 아이가 나보다 더 자연스러운 듯 했다. 내가 더 긴장 했던 것 같다. 어머니니까... 혹시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번의 봉사에 참여를 했고 2학년 마지막 봉사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들은 간사님의 말을 내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다.

강남 소재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장애학생이 입학 을 하게 되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해 학교를 전학시켰다는 뉴스의 내용을 말해 주셨다. 몸만 좀 불편한 친구 인데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려면 학교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내 아이의 학교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그랬

다는 것이다. 그 학교는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걸출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학교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진정한 사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있을까? 배려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아직 2학년 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친구가 엄마가 회사 가서 일해서 용돈만 많이 주면 집에 없어도 된단다.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봉사라는 것. 내 한 몸 움직여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파트 입구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던 아이가 봉사는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같은 아파트 같은 학교의 친구도 같이 하게 되었다. 내가 농담 삼아 “와~봉은초 친구들 멋있는데~” 그랬더니 딸아이가 “응, 우리 봉은초는 원래 그래, 우리 이제 3학년 올라가면, 학교 청소도 도와야 해~” 하는데 봉사가 당연한것을 배우는 우리학교 아이들이 대견하고 참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봉사를 통해 내 아이만 앞서가는 것이 결코 내 아이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작성자 봉은초 2학년 전아인 학생의 어머니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6-4 장세훈(봉은초)

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위해 다일공동체로 밥퍼봉사를 다녀왔다. 다일공동체는 1988년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어른들이 다 드신 식판을 치워드리고, 새로 식사하실 자리를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젊은 청년을 보자 세상에는 자기가 가지고 싶지도 않은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힘이 약하신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게 되었다. 힘든 사람 없이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우리가 똑딱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선생님께 배웠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잘 만들어질 때까지 하루하루 버텨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하는 일, 그 일을 바로 밥퍼 봉사를 통해 실천하고 온 것 같다. 마지막에 봉사 후 먹은 주먹밥은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어른용 두 개를 나 혼자 다 먹었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고 봉사단체에서 말해주셨는데 참 기억에 남는 말이다.

5-3 이지안(봉은초)

노숙자 분들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밥퍼 봉사를 다녀왔다. 샤프론 봉사단과 챌린저들이 직접 밥을 퍼서 제공해 드리는 일, 손가락을 나눠드리는 일, 인원수를 세는 일 등 밥 한 끼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각자 분담하여 해보았다. 우리가 직접 음식을 나누어 드리니, 노숙자분들과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서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무척 뿌듯했다. 손가락을 나눠드릴 때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한 말이 밥 한 끼만 주는 것보다 더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었던 이유 같았다. 밥퍼봉사를 끝내고, 밥퍼봉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웠다. 밥퍼봉사는 한 목사님께서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닌 따뜻한 밥 한 끼라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매일 삼시 세끼 먹는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가구나라고 느꼈으며 아무런 생각없이 밥 먹었던 것에 부끄러움이 들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해 보고 싶은 봉사활동이었다.



대한민국 KOREA

마음에 새기는 나눔, 미래의 희망들과 함께

1. 봉은초등학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82년 개교하여 18년 2월 36회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11대 교장으로 16년 3월1일 부임하였습니다. 600여명의 학생이 24학급으로 편성되었고 63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의 문화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우리 봉은초 아이들은 부모들의 수준높은 생활을 당연히 하고 어려운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몸으로 부딪혀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고, 나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꽤 많다고 생각되어 배려하는 리더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3. 밥퍼 봉사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학생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 밥퍼 봉사를 하고 와서 학부모님들은 매우 뿌듯해 하고 봉사를 하면 내가 도리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봉사 활동이 너무 좋고 아이들 인성교육에 최고의 자료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계속 이어서 해 달라는 부탁이 많습니다. (일전에 보내드린 전 아인 어머니님 편지글)

- 아이들도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 보게 되니 너무 놀랍다고 합니다.

4. 선생님께 나눔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 저는 나눔을 교육하고자 시작했던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활동하다 보니 나에게 기쁨이 되는 소중한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나눔은 내가 행복해지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5.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다일공동체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봉사하려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다행이긴 하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가끔 한 번씩 다녀오는 사람들이다 보니 봉사기관의 소속원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다일공동체는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상처 받지 않고 나누는 즐거움을 몸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변하지 않았으면 해요.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밥퍼나눔운동본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밥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서울국세청장님과 임직원 분들이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따뜻한 인사와 아침 9시부터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밥퍼와 함께 정기적인 봉사와 후원활동을 위한 MOU를 체결해 주셨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함께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행복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칠순 기념 밥퍼봉사

올해 칠순을 기념하며 태순영님께서 친구분들과 밥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일일배식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많이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일당백으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순영님이 밥퍼에 오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환갑을 기념하여 밥퍼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고 소중한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었던 날이었고 밥퍼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수리 기독교중학교

독수리 기독교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밥퍼를 방문하였습니다. 낮 최고기온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양파, 대파, 손질, 설거지, 잔반 등 굿은일도 마다않고 끝나는 시간까지 웃으며 어르신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노경민 학생은 소감문에 '밥퍼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일상에 끌려 다녔던 저에게 잠시 새로운 나눔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모님과 밥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게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기독교중학교가 최고야!

베트남



(사)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역시! 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자원봉사활동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매년 밥퍼를 찾아주셔서 정성스레 밥을 대접해주시고 베테랑답게 설거지 또한 멋지게 해주신 덕분에 자원봉사활동의 진가를 맛보았습니다.

정당과 훈훈함을 덤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분들 최고입니다!!



어와나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밥퍼를 방문해주었습니다. 방학이라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하나 봅니다. 학생들이 자진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밥을 대접해드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좋은 영향력으로 번지기를 희망하며, 학생들의 멋진 앞날을 응원합니다!!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오신 자원봉사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설립과정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김정태 선교사님+이소연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 세인이와 2011년부터 탄자니아 한인선교사 수련회에서 리더십 세미나로 재능기부를 하고 계신 유제필 소장(JP Consulting)님께서 우간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키티코 초등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 주시며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우간다까지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천국



영천교회 청년부 자원봉사팀

영천교회 청년부 자원봉사팀이 다일작은천국에 첫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영천교회는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로써 '영천'을 풀이하면 '영혼의 샘'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영혼의 샘을 담고 있는 것처럼 봉사를 온 청년들도 정말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봉사를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겠다며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순수해보였습니다. 봉사가 다 끝나고 다음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 오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진심이 입소자 어르신들께도 느껴졌는지 어르신들도 감동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영천교회 청년부 자원봉사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어르신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시러 봉사 꼭! 와주세요.



배화여대 HOW팀 봉사 동아리

배화여자대학교 봉사 동아리 HOW팀 학생들이 이번달에도 다일작은천국을 방문 해주셨습니다. 이번달 초에도 다일작은천국을 입소자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과자와 음료를 사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두손 가득히 어르신들의 간식을 사왔습니다. 항상 다일작은천국을 위해 봉사를 와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회식비를 아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니 직원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리고 철없을 시절이어도 어리니가 이해가 된다는 나이이지만 입소자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어른보다 더 나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다일작은천국을 잊지말고 봉사와주세요! 함께해요 배화여대 HOW팀!



사랑의 클린 봉사 자원봉사팀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일작은천국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랑의 클린 봉사에서 고등학생 친구들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왔습니다. 이날은 뜻 깊은 행사 날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봉사 온 사랑의 클린 봉사 학생들이 다과준비, 의자정리, 청소 등 모든 걸 깔끔하게 준비해주었습니다. 처음 온 학생들이었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간식 준비를 하며 옥수수를 다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천사 같았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연계하여 오는 학생들이라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봉사이지만 다음에도 다일작은천국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본원)



신일고등학교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위해 신일고등학교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사역부터, 밥퍼, 태권도 사역까지 아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구슬땀을 흘리며 넘치는 에너지로 함께해주신 신일고등학교 학생들과, 인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환경정화 활동으로 함께해주신 페인트 작업으로 프놈끄라움 밥퍼센터가 한결 화사해 질 수 있었고, 또 아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후원의 손길을 모아 주신 덕분에 풍성한 밥퍼 나눔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많이 받고 가신다며, 내년에도 함께할 것을 약속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신일고 어찌(최고) 어꾼 뽀레야 예수!



허춘중 목사님과 경기 동노회 세계선교부 청년 / 대전임마누엘교회 비전트립팀

다일이 걸어온 따뜻한 밥퍼의 역사 속에 늘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주신 허춘중 목사님께서 경기동노회 세계선교부 청년팀, 대전임마누엘교회 비전트립팀과 함께 양일에 걸쳐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밥퍼와 워십,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사역으로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해주셨는데, 순간을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묵묵하고 아름다운 섬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도로 함께 동역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며,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모아 후원의 손길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꾼 뽀레야 예수!

캄보디아 (프놈펜 지부)



재건동산교회

재건동산교회에서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로 밥퍼봉사 오셨습니다. 밝은 웃음과 미소로 우리를 반겨 주셨고 아이들을 또한 환한 미소로 안아주고 밥퍼봉사와 위생봉사하시고 가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음악공연을 해주셨고 많은 아이들이 호응해주고 가사는 모르지만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납니다. 한국에서 멀리 찾아와 주신 재건동산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놈펜 제일교회 청소년부

프놈펜 제일교회 청소년부에서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로 밥퍼봉사해주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밥퍼로 오신 프놈펜 지부에 밥퍼온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거렸고 교사들도 한껏 들뜬 기분으로 밥퍼봉사와 위생봉사 하시고 가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얼굴에 그림 그려지고 풍선 들고 뛰노는 모습에 교사들은 웃음을 지었고 지켜보는 우리들과 마음이 기뻐집니다. 프놈펜 지부에 오셔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봉사하시고 사귀어 프놈펜 제일교회 청소년부가 최고야!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간다 신규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2018.6.6. ~ 2018.8.5	<table> <tr> <td>후원금</td><td>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김계숙, 김용미, 남은희, 안희창, 최양숙, 한규재</td></tr> <tr> <td>후원물품</td><td>권용배(비스킷), 배종호(비스킷)</td></tr> </table>	후원금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김계숙, 김용미, 남은희, 안희창, 최양숙, 한규재	후원물품	권용배(비스킷), 배종호(비스킷)
후원금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김계숙, 김용미, 남은희, 안희창, 최양숙, 한규재				
후원물품	권용배(비스킷), 배종호(비스킷)				
밥퍼나눔운동본부 신규후원 2018.6.6. ~ 2018.8.5	<table> <tr> <td></td><td>서울지방국세청, 톨슨로이터코리아</td></tr> <tr> <td>후원물품</td><td>롯데칠성 - 음료 홍종욱, 이주민(7/17 쌀 10포대), 홍종범(쌀 40kg), 정혜정(쌀 40kg), 홍예은, 홍주는, 홍은석 (7/25 쌀 각 3포대, 총 9포대 후원)</td></tr> </table>		서울지방국세청, 톨슨로이터코리아	후원물품	롯데칠성 - 음료 홍종욱, 이주민(7/17 쌀 10포대), 홍종범(쌀 40kg), 정혜정(쌀 40kg), 홍예은, 홍주는, 홍은석 (7/25 쌀 각 3포대, 총 9포대 후원)
	서울지방국세청, 톨슨로이터코리아				
후원물품	롯데칠성 - 음료 홍종욱, 이주민(7/17 쌀 10포대), 홍종범(쌀 40kg), 정혜정(쌀 40kg), 홍예은, 홍주는, 홍은석 (7/25 쌀 각 3포대, 총 9포대 후원)				
중국 현지 후원자 및 물품 후원자 명단 2018.6.6. ~ 2018.8.5	<table> <tr> <td>후원금</td><td>김성재(Obey & Praise), 김학용, 다일 어린이집 졸업생 모임</td></tr> </table>	후원금	김성재(Obey & Praise), 김학용, 다일 어린이집 졸업생 모임		
후원금	김성재(Obey & Praise), 김학용, 다일 어린이집 졸업생 모임				
베트남 신규후원내역 2018.6.6 ~ 2018.8.5	<table> <tr> <td>후원자</td><td>사)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A PLUS, LOTTERIA, NAHAL, POSCO DAEWOO INTERNATIONAL VEGAS, 권민혁님, 김세현, 박미영, 김수연, 김수민, 김서연님, 닥터카,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어와나, 오희승님, 이형식, 최순열님, 참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td></tr> <tr> <td>후원물품</td><td>ARTISAN(빵),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라면, 우유, 티셔츠,동전지갑), 안연숙님(야쿠르트), E-VIET SOLUTION(쌀), KIS오케스트라(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POSCO ICT(쌀), VEGAS(라면), 노엘(계란),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td></tr> </table>	후원자	사)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A PLUS, LOTTERIA, NAHAL, POSCO DAEWOO INTERNATIONAL VEGAS, 권민혁님, 김세현, 박미영, 김수연, 김수민, 김서연님, 닥터카,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어와나, 오희승님, 이형식, 최순열님, 참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	후원물품	ARTISAN(빵),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라면, 우유, 티셔츠,동전지갑), 안연숙님(야쿠르트), E-VIET SOLUTION(쌀), KIS오케스트라(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POSCO ICT(쌀), VEGAS(라면), 노엘(계란),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후원자	사)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A PLUS, LOTTERIA, NAHAL, POSCO DAEWOO INTERNATIONAL VEGAS, 권민혁님, 김세현, 박미영, 김수연, 김수민, 김서연님, 닥터카,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어와나, 오희승님, 이형식, 최순열님, 참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				
후원물품	ARTISAN(빵),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라면, 우유, 티셔츠,동전지갑), 안연숙님(야쿠르트), E-VIET SOLUTION(쌀), KIS오케스트라(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POSCO ICT(쌀), VEGAS(라면), 노엘(계란),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캄보디아 현지 후원자 및 물품 후원자 명단 2018.6.6. ~ 2018.8.5	후원금 Rocky cafe, 갈릴리 남부교회, 강원도 교육청, 광주은행, 금산마니아, 꿈의 교회, 대박, 무명, 새로운 교회, 서울동노회 세계선교부, 옥토교회, 용인성민교회, 유니온국제학교, 이명애, 이재형&이민형, 재건동산교회,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 카도, 포일남교회 마하나임 찬양단, 프놈펜 제일교회, 프놈펜 제일교회 청소년부, 한국대학사회봉사 협의회(KUCSS), 홍콩감리교회 후원물품 식료품 : 단국대학교, 서울동노회(문영용 목사),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 황채순 목사 의류 및 신발 : 양주 주내교회,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 황채순 목사 / 학용품 : 성동공업고등학교, 황채순 목사 / 잡화 : 갈릴리 남부교회, 성동공업고등학교,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 한국대학사회봉사 협의회(KUCSS), 황채순 목사
--	--

2018년 6월 7월 신규 정기후원 회원명단	(주)지앤씨마케팅, 강다우, 강순전, 강익숙, 강정식, 강지민, 경성대학교드림하이1기, 권기영, 권기정, 권민규, 권민성, 권용진, 권혁창, 김경화, 김공숙, 김규년, 김기석, 김대원, 김동욱, 김동주, 김량희, 김명규, 김민규, 김민상, 김민석, 김민석, 김병연, 김상희, 이주태, 김수현, 김수현, 김순혜, 김영희, 김용백, 김용태, 김유환, 김윤수, 김윤중, 김은경, 김점숙, 김정자, 김준서, 김지원, 김진관, 김진영, 김진환, 김태환, 김해성, 김혜진, 김호연, 남궁서정, 남보영, 남인영, 노현길, 노현동, 대광탁구동호회, 대한예수교장로회광명교회, 동휘승회치현, 러플빛두리, 롯데칠성음료(주), 맹민숙, 문병규, 민기범, 밀리언, 박건우, 박규민, 박도현, 박미애, 박민찬, 박윤정, 박재범(이연주), 박준식, 박진규, 박찬재, 배석환, 백병호, 백상열, 백창엽, 변재덕, 변현우, 보라매열린교회, 부활의 교회, 사회복지모금회, 서용준, 서울지방국세청, 서지원, 서춘근, 설악우체국, 설준수, 손경희, 손우정, 송미정, 송승원, 송원대, 송재원, 수협은행, 신용하, 신준하, 신창근, 심규빈, 심은자, 안 경우, 엄태정, 여정호, 연경화, 예금보험공사, 오소연, 오현철, 우기창, 우미숙, 이상엽, 이성경, 우준범, 우진희, 원준연, 유지연, 윤선정, 이경화, 이달영한정자, 이대규, 이동현, 이문환, 이상용, 이수형, 이순혁, 이승철, 이영미, 이용준, 이은영, 이은호, 이재리나, 이재준, 이정환, 이종후, 이주영, 이지현, 이창섭, 이추옥, 이태현, 이한철, 이현수, 이현주, 임도규, 임성희, 임수민, 임수현, 임원수, 임은정, 임재민, 자일링스, 장성영, 장주웅, 장혜정, 장희동, 전민권, 전민규, 전세용, 전호진, 정기환 정다아, 정민호, 정주영, 정준엽, 정학봉, 정한숙, 정현문, 정희영, 제일병원 성형외과팀, 조지현, 주지안, 진제규, 최규수, 최기영, 최미경, 최영환, 최은주, 최은혁, 최종민, 태순영, 통솔로이터코리아, 하은정, 한동연, 한호진, 허영희, 홍바울, 홍성식, 홍지영, 홍진의, 황민희, 황산, 황성동, 황승호, 황종찬
---	---

미국 2018.6.6. ~ 2018.8.5	HANAIM CHURCH INC., 남기만, JASON Y OH (오상용), Olivia Choi (최서연), Esther Lee, Sang C Lee (이상춘), Ho Sup Song (송호섭),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HATTANOOGA, Eun Joong Kim, Ai Yeong Kim (김은중, 김애영), Insun Lee (이인선), Young Mi Park (박영미), Hyonuk An (안현욱), Yerim Noh (노예림), Jacqueline Bach, Janeth Carrillo
-----------------------------------	--

필리핀 현지 후원내역 2018.6.6. ~ 2018.8.5	JIC 여학원 강사들, John Jo 원장님, Thanh, Ruth, 윤한글님, 김태완님, 나성원님, 김형미님, 이미현님, 이명현님
--	---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후원 안내

정기후원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 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다일천사회원이 되어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이상)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이상)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다일평생천사회원이 되어
 설곡산 다일공동체 프로젝트 및
 국내외 다양한 다일 사역을 지원하는
 평생가족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다일복지재단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 예금주: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 예금주: (사)데일리 다일

네팔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45
 베트남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16
 우간다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61
 중국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03
 캄보디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32
 탄자니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58
 필리핀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29

· 새로운 다일공동체 해외분원 계좌입니다.

사단법인 데일리 다일로 다시 태어나는 다일공동
 체 해외분원을 응원해주세요.

미주 및 캐나다 다일공동체 후원문의

· Check 후원

Pay to the order: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
 Pay to the order: Dail v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Debit/Credit card/ACH 후원

미주다일공동체 오피스
 770-813-0899 /usa@dail.org
 로 문의해 주세요.

· 캐나다 다일공동체 오피스 1-416-824-4831 로 문의해 주세요.

·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

(dailusa.org)에서도 회원가입후
 후원신청 가능합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 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1:1 해외아동 결연

월 3만원 _____ 구좌

☐ 쌀 10kg

월 3만원 _____ 구좌

☐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 기타

월 _____ 원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 기타 _____ 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 번호 _____

연락처 _____

☐ SNS 수신 동의

이메일 _____

☐ e-mail 수신 동의

주소 _____

☐ 우편물 수신 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 5일

☐ 15일

☐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 번호 _____

(남 / 여)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_____ (서명)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다일공동체

- 📍 1247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 17-3
- ☎ 031-584-7478

사단법인 데일리다일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다일복지재단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 📍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8
- ☎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3-8004

설곡산다일공동체

- 📍 1247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 ☎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 📍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17-3
- ☎ 031-584-7478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 📍 St N'63 Tour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 ☎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 📍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e Penh, City, CAMBODIA
- ☎ +855-17-764-440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 ☎ +63-916-517-5892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 ☎ +63-916-517-5892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 📍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 ☎ +977-98494-58330 / +977-98413-84069

포카라 지부

- 📍 9 Shivatol Buspark Pokhara Kaski, NEPAL
- ☎ +977-98607-76685

중국 다일공동체

- 📍 133300 中国吉林省琿春市西城名苑53栋1单元601,602
- ☎ +86-433-753-8004

우간다 다일공동체

- 📍 P.O Box 85 Kisubi, UGANDA
- ☎ +256-771-072-382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 ☎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 📍 21 đường Mỹ Giang 2B, Khu phố Mỹ Giang 2,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 ☎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 📍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 ☎ +1-770-813-0899 / (Fax) +1-770-813-0133
- 🌐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 📍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 +1-416-824-4831

아름다운 세상찾기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데일리다일 이사장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4박 5일)	193기 11월 5일~9일(특별영성수련) 194기 12월 10일~14일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단체사용신청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1035-586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031-585-6478, 031-585-2004, 010-3671-8014 홈페이지 sg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
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네비게이션으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다일천사병원 앞에서는 매 주일 오전에 스타렉스가 출발합니다. 탑승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밥퍼 재건축을 위한 기도

밥으로 오신 예수님!
밥퍼나눔운동본부로 하여금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삼십년간 천만명 이상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건물은 임시 가건물입니다.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튼튼한 시설로 재건축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특히 노숙하는 형제들과 고독한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십만명이 넘는 밥퍼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사 밥퍼 재건축에 참여하게 하시어
동대문구의 명소가 되며
서울시의 나눔과 섬김의 아이콘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밥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며 평화를 만들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